I.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인문계)

1. 201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07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한 '통합형 논술'을 통해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

첫째, 수험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후 본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본교는 대학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학능력 중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③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④ 인간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리적 사고 능력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신 성적의 학교별 격차와 수능시험 성적의 변별력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내신 성적이나 수능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없거나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 수학능력이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고사는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보완과 보정의 역할을 한다.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이런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술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상기한 수학능력 중 ①~③의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논술'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려는 요소에 약간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자신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상기한 대학 수학능력 중 ①과 ②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③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조점을 두었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전에 비해 ③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다고 ①과 ②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③의 능력은 ①과 ②의 능력에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비유가 중점 평가요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을 평가하려 하였다.

-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고려대학교는 2014년 5월 10일 모의논술을 실시하여 이렇게 변화된 중점 평가요소를 수험생들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후술될 모의 논술고사 답안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직도 이전 몇 해 동안의 논술고사 평가 방향에 맞춰 논술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본 논술고사 자료집이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에 반영될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 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는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라는 큰 주제 하에 느슨하게 연결된 두 개의 제시문,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그리고 두 개의 큰 논제로 구성되었다.

글 ①은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네 가지를 지적하고 사례를 들어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 네 가지 요인이란 경제적 이점, 사회적 가치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 기술 이해의 난이도를 일컫는다. 새로운 기술은 우선 경제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야 사회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사회적인 가치관도 경제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브랜드의 가치가 상품의 유용성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새로운 기술은 기득권의 저항을 만날 때 사회에 도입되지 못하기도 한다. 쿼티 자판이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판 배열 방식의 도입을 막은 경우나 트랜지스터가 그 소자의 개발국인 미국이 아닌 일본의 회사에서 사용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은 그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발전의 주요 동력이다. 그러나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자체의 우수성 못지않게 사회적 조건도 기술의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우

에 따라서는 기술 자체보다 사회적 조건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글은 수험생들이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을 등치시키는 단순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입체적인 사유를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이 글의 출전이다.

글 ②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운데에서 발췌하여 논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가감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목민심서』라는 책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방 행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수령의 '부임'에서부터 직무가 끝나 면직이 되는 '해관(解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제3편인 '봉공(奉公)'에서 발췌하였다. 주요 논지는 공적 재원인 절목(節目)의 폐해와 개선 방안이다.

글 ②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각 고을의 공공 재원을 관리하는 창고에서 일종의 지출 항목으로 설정한 절목의 폐해를 지적한다. 이 공용의 재정은 고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수령이 그 절목을 사사롭게 설정하거나 해마다 늘려나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당한 착취에 시달리고 나날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애민정치를 표방하는 유교적 정치원리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모순을 증대시키는 조선후기의 위기적 현실을 정약용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비합리적인 절목에 대한 예시 단락이다. 여러 가지의 예시를 통해 정약용이 파악한 절목의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의 지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또는 허위로 만들어진 조목들이다. 둘째는 한번 설정된 조목들은 관례로 굳어져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러한 조목의 설정과 유지에는 탐학한 수령과 간교한 아전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단락은 잘못된 절목에 대한 개선 방안의 제시이다. 공공의 재정은 그 지출이 공적인 사안에 국한되어야 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에게 형평성 있게 분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절목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하거나 고치고, 사용 물품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기준을 제시하며, 재정부담 또한 백성들이 고루 분담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의 방안들이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약용은 국가기강의 이완을 틈타 당대의 지방행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착취와 수탈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백성을 위한 참다운 정책 실현의 방안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는 목민심서의 일관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글 ③은 기존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인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기존 기술을 여전히 사용할 가능성을 수치적 예를 통해 보여주는 '모형'이다. 시민들은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하나는 앱 자체의 사용자 편의성이 주는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앱을 통하여 통신할 수 있는 사람 수에 기인한 편익이다. 후자의 편익은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커진다. 메신저 앱이 처음 출현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편익 또한 커지므로 모든 사용자가 그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단 다수의 사용자를 가진 앱이 존재하게 되면, 편의성이 개선된 새로운 앱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앱의 사용자가 많아 그로 인한 편익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글 ①에서 제시된 '쿼티 자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가) 논제 I

1) 출제 의도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느슨하게 연결되는 두 개의 글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이 글들을 '활용'하여 글들과 느슨하게 연관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지난 몇 해 동안 실시해왔던 고려대학교 논술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려대 논술문제는 제시된 글들 간의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독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2014학년도 논술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제되었다.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4학년도 논술고사 A형)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진행되어온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을 통해, 논술의 중점적인 평가요소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논술고사 출제진은 논술문제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하였고, 이번 모의 논술고사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출제진의 고민을 반영한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제시문 수를 줄이고 느슨하게 관련된 비교적 긴 글들을 제시한 후, 이 글들과 느슨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논술하도록 하였다.

둘째, 같은 제시문들을 활용하되, 논술의 주제를 '사회발전'(A유형)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B유형)라고 다르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각각에 대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 고사가 모의고사인 점을 고려하여, 논제를 조금 다르게 서술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A유형: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B유형: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시오.

셋째, 2014학년도 논술고사는 답안의 분량을 900(±50)자로 설정했던 반면 올해 모의 논술고사는 그것을 1,000(±50)자로 증가하였다. 답안 분량의 조정 역시 학생들이 비교적 긴 호흡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출제진은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 답안 작성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2015학년도 논술고사에 배당된 시간이 이미 공시되었기 때문에 출제진의 욕심만큼 원고 분량을 늘릴 수 없었다.

2) 평가 항목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ㄱ) 글의 내용:

(i) 글 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그 채택은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 기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수용성 여부 등이 있다.
- 기술발전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 기술발전의 어려움은 관행 혁파의 어려움을 예증한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행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혁파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시발점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ii) 글 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특정한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장(長)의 결단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 기득권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을 혁파해야 할 경우가 있다.
- 관행의 혁파는 종종 급진적인 형태를 띤다.
- 관행의 혁파를 고려함에 있어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을 두루 살피는 안목이 필요하다.
- 관행은 무조건 혁파의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 또한 중요하다.

(iii) 수험생은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한다. 여기서 글의 '활용'은 주어진 글의 단순한 요약이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적당한 배합을 뜻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주어진 글에서 발견하는 여러 내용들을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에 맞춰 적절히 취사선택한 후 그것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수험생의 글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유형 A에서는 '사회발전'이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측정하려 하였다. 유형 B에서는 유형 A보다 상대적으로 글 내용의 폭을 제한하는 주제를 제시하지만, '관행'과 '사회변화'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 전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관행은 반드시 사회변화의 장애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관행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또는 관행의 혁파 없는 사회발전은 불가능한가?)
- 사회변화는 기존 관행의 혁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가?
-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고 할 수 없는가?
- 사회변화에 있어 사적인 기득권의 포기와 공공성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v)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 특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논술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 제시문의 요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즉,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특정한 논제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논거가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
- 자신의 논제에 대해 독창적인 논거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
- 두 개의 제시문을 단순 비교하거나, 어느 하나를 기준삼아 다른 하나를 해석 및 분석하는 경우(즉, 무조건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기존 논술 형식을 따른 경우).

ㄴ) 글의 구성

(i)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성격의 글임을 고려할 때,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ii)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iii) 문장이 유려하며,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ㄷ) 글의 형식

(i)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하였는가?

(ii) 비문을 쓰지 않았는가?
(iii)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였는가?

나) 논제 II

1) 출제 의도

글 ①의 '퀴티 자판'의 경우는 기존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인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기존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글 ③은 이런 경우를 수학적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모형'이다. 논제 II는 이런 수리적 모형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치적으로 얻은 결과를 '인문학-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평가 항목

1. A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이 B를 사용할 때보다 크면, A를 사용한다. 즉, $2x > 10 - x$ 또는 $x > 10/3$인 시민이 A를 사용한다. (표를 통하여 비교하여도 됨) 이를 만족하는 시민은 4, 5,...,9, 10이므로 모두 7명이다.

2. 시민 3을 고려해 보자. 그가 앱 B를 사용할 때 얻는 편익은 만족감 $10-3=7$과 사용자 수로부터 얻는 편익 3을 더한 10이다. 만약 그가 앱 A를 사용한다면 편익은 $2\times3=6$과 7을 더한 13이다. 따라서 그는 앱 A로 교체할 용의가 있다.

이제 10명 모두가 A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족감만을 고려하면 B를 사용할 용의가 가장 큰 사용자는 시민 1이다. 이때 시민 1이 A를 사용하는 경우 총편익은 $2\times1+10=12$이고, B를 사용할 경우 총편익은 $10-1+0=9$이다. 따라서 아무도 B로 교체할 용의가 없으므로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 3이 전환하여 $n=8$이 되고, 이후 시민 2가 전환하여 $n=9$가 되며, 결국 시민 1도 전환한다는 식의 설명도 가능하다.)

3. 모두가 C를 사용하면 시민 x의 편익은 $2x+5+10$이고 모두가 A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10$이므로, 시민 모두가 C를 사용할 때의 편익이 더 크다. 만약 모두가 A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민 x의 편익은 $2x+10$이고, B로 교체할 때의 편익은 $2x+5$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편익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사용자 수에 시민의 선택을 반영해 $2x+9$와 $2x+6$을 비교해도 좋다.) 따라서 아무도 B로 교체할 용의가 없다.

모든 시민이 사용 만족감 면에서 B를 A보다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 수로 인한 편익 때문에 B로 교체할 용의가 없다. 기존 사용자 수 때문에 더 나은 앱이 나와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1. 논제 I

가) 총평

이번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논제Ⅰ의 답안 채점을 통해 이른바 '고려대 논술 유형'이 수험생들의 의식 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매우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유형과 전혀 다른 형태의 논제가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종전의 유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정도였다. 지난 몇 해에 걸쳐 고려대학교의 인문계 논술시험은 3~4개 정도로 주어지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할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형태의 시험은 수험생의 이해력과 논리적 구성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는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출제진은 그처럼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였다. 이번 모의 논술시험은 그 고민의 소산으로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비정상적인 시험 준비 방식을 바로 잡고 논술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인문계 모의 논술시험 논제 Ⅰ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은 종전의 유형에 맞춘 답안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유형에서는 답안의 구성과 거기서 다룰 내용이 이미 논제에 제시되어 있었고 수험생은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되었다. 그에 비해 이번 모의논술의 논제는 보편적인 의미의 '잘된 글'을 쓸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한다. 답안이 '잘된 글'이 되자면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하며, 국어 문법의 면에서 정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종하는 경우도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한다.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 포섭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연한 내용은 '논술하시오'라는 논제의 지시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 훌륭한 논술문은 정확한 문장으로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여 논자만의 창의적인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

모의논술 답안들에 대한 채점을 통해 전술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답안이 논제의 지시는 도외시하고 종전의 유형에 따라 작성되었다.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①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② 제시문을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다.
③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는다.
④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⑤ 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

상기한 경우들처럼 제시문에 수렴되는 답안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 스스로 논의를 구성하고 제시문을 주체적으로 포섭하면서 글을 작성한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학

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시험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인문계 논술시험의 A, B 유형별 논제Ⅰ의 우수 답안과 부족 답안의 사례들이다. (답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타자하였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례마다 논평이 첨부되었다. 그 논평은 해당 답안을 채점한 채점 위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나) 우수 답안의 사례

A형 사례 1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자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킬 때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는 그 스스로가 가장 능률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논평>

위 답안은 ①과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의 차원을 기술과 제도 두 가지로 나누고, 올바른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논의하면서 독창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①과 ②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발전을 효율적인 기술의 수용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제도의 수립으로 대별하여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로 기득권의 저항과 배타적 이익 추구를 지적하고 있다. ①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기득권의 반대로 좌절된 점과 ②에서 제도의 혁신이 기득권의 이기적인 이익 수호를 위해 시도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을 중요한 주제어로 삼아 사회발전의 장애요인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발전이 좌절되면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되고 불평등의 심화는 또다시 사회발전의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묵과하기보다 소시민과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서서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답안의 필자는 ①과 ②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의 장애물과 원동력에 대한 본인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글의 구성 또한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잘 따르고 있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

법 준수 등 글의 형식의 면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A형 사례 2

사회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제시문1에서 언급된 '기술'과 같은 물질문화의 발전과 제시문2에서 언급된 '법·제도' 등의 비물질 문화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사회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혁신은 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따라서 비물질 문화의 발전보다 일반적으로 선행한다.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그 기술의 경제적 이점인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국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 내에서 알맞은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그것이 기존의 산업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신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발전의 양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술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을 야기한다. 제시문2에서 적절한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21세기 초,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을 때는 모두가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공룡 기업들의 횡포가 전부였다. 물질 문화는 맹목적인 성장만을 좇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의 사회발전은 반드시 적당한 규제를 수반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발전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질적 사회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의 갑을관계를 청산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논평>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글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글과 느슨하게 연결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논술하라는 논제는 그러한 출제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답안은 이러한 성격의 논제를 접한 수험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할 만한 글이면서도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에 우수답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본 답안은 두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논거들, 즉 기술발전의 수용에 관련된 여러 논점들과 제도적 개혁에 관련된 여러 논점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본 논제는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발견되는 논거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그러한 논거들에 의존하여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잘 구성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답안은 사회발전이 '물질문화' 및 '비물질 문화' 두 측면에서의 발전을 동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관점 자체는 평범한 논리에 의존한 것으로서 독창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시문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신만의 논제를 때로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논술문의 성격을 지닌 글이 만족시켜야 할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 제시문의 활용 또한 단순한 직접 인용을 넘어 본인의 언어로 재해석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재해석은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글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질문화를 논하는 곳과 비물질 문화를 논하는 곳이 분량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분명하며, 특히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논의를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본 답안을 돋보이게 해 준다.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분량 또한 매우 적절하다.

B형 사례 1

관행과 사회변화는 상대적인 개념이자 순환적이다. 처음엔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였던 것이 오래 지속되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축적되거나 변동을 겪기도 한다.

제시문 ①과 ②는 사회변화와 관행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본다. ①에선 사회변화의 요소가 현재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행과 합치되는 면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보다 더 나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회변화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문화별로 관행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회변동도 다르다.

그러나 제시문 ②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꼭 기존의 관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전례를 들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관행들을 만들어낸 이전 수령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지 않은 관행들은 전면적으로 변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좀 더 공평하게 개선하는 사회변화가 만약 후대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행과 사회 변화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이다. 관행이 이미 공평하고 현 사회에 적합하다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회변화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존의 관행이 구성원 전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사회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관행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거세거나, 변화를 통한 이익이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경우엔 사회 변화가 좌절될 수도 있다.

기술 발전 같은 사회변동 용인이 등장했을 때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채택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이다. 항상 이 변화가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리에만 따라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변화가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논평>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하는 이 글은 우선 그 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글들에 비해 우수했다. 필자는 전체 글을 크게 세 개의 부분, 네 문단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문단 간의 구조가 비교적 논리적이었다.

우선 첫 부분에서 필자는 관행과 사회변화가 '순환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많은 답안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기보다는 제시문 안에 있는 표현을 적당히 재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 학생은 ①과 ②의 요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글로 재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두 제시문이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문단에서는 처음에 본인이 밝혔던 관행과 사회변화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함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 즉 기술발전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경우, 그 수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답안은 글의 구성이나 내용뿐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사회변화'와 '사회 변화'를 혼용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B형 사례 2

'관행'은 그 행동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에서 오랫동안 행해서 굳어진 일이다. 관행은 ②의 필자처럼 누군가 그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누군가 관행을 비로소 평가하게 되면, 게다가 그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사람들은 그 관행을 바꿀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관행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람들은 사회변화를 외친다.

하지만 ①을 통해 생각할 때, 새롭게 수용되어 행해진 사회 변화가 관행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①에서 사회가 새 발명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증가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 기득권과의 양립가능성, 그 기술이 주는 이점의 가시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더 큰 편익을 생각한다면 혁신된 기술을 지닌 발명품을 수용하겠지만 그들은 사회적 명성, 기득권과의 관계 등 다소 동떨어진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관행에 맞서 사회 변화를 일으킬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도 관행과는 다를 수 있어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필시 관행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또한 누군가에게만 이점일 테고 결국 다른 모습으로 기존의 관행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고, 또 새로운 관행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관행과 사회변화의 양면성과 이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②의 필자처럼 현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는 개인이다. 그런 개인들이 많을 때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익숙함에 맞설 사회변화의 수용을 고려할 때도 다양한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성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을 때 ②에 나타난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옳은'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

<논평>

①과 ②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논제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글의 논지를 전개해 나간 글이라 볼 수 있다. '관행'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글의 첫 대목은 이후 전개될 내용 전반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 글의 장점은 '관행'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①과 ②를 서로 비교하거나 대립시켰다는 데 있다. 이 글은 ①과 ②를 재치 있게 밀고 당기면서 '관행'을 비판하거나 '관행'의 양면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을 사회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관 지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진단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은 앞서 전개한 논지 전반에 탄력을 받아 무리 없이 설득력을 확보해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②의 필자처럼'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들이 더러 목격되었다는 점, 매끄럽고 논리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지나치게 '관행'을 중심으로만 논지를 이끌어내고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다) 부족 답안의 사례

A형 사례 1

사회발전은 다수의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의 도모를 위해서 사회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만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라도 새로이 재창조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발전은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사회적 개별성, 위신과 혁신, 투명성, 가시성,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평가해줄 내부적인 피드백이다.

사회발전은 각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사회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지닌 유동성 있는 존재이며, 자연환경,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러한 사회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면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정과 선호를 전제로 하는 존재이다. 사회발전이 그 구성원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사회의 위신은 저절로 추락하게 되고 발전은 무의미해진다. 즉 사회발전은 그 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은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제도나 사회적요소를 그대로 따르는 관성적인 태도는 매너리즘에 빠져 잘못된 투자와,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설정의 오류를 가져온다. 즉, 사회발전은 지속적인 변화

를 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회 변동적 요인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해야한다.

사회발전은 또한 투명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지녀야한다. 내부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영향을 기대할 수 없으며 투명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눈에 잘 띄며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발전의 필요요소인 것이다.

사회는 내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회발전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를 설정하여 사회발전의 개별성, 위신, 혁신, 투명성과 가시성을 평가할 때 사회발전의 방향과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재설정할 때 유리하다. 또한 내부적인 피드백은 사회발전이 어느 특정집단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비판해야 한다.

<논평>

위 답안은 사회발전에 관해 "내부적인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글의 흐름도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어서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로 주어진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제시문과 별 관련이 없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지 않은 답안의 사례에 들게 되었다. 사회발전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준(사회적 개별성, 위신과 혁신, 투명성, 가시성 등)을 자의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회발전이 자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글의 표현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띈다(예: "내부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영향을 기대할 수 없으며 투명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①과 ②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근거가 극히 박약하며 제시문들과의 관련 하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다. 제시문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시문들을 과도하게 인용한다는 점인데, 이 답안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제시문을 전혀 인용하지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제시문들을 지나치게 인용하여 답안의 대부분을 제시문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은 답안이지만, 위 답안처럼 제시문을 전혀 언급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그냥 써내려간 답안도 좋은 답안이 아니다.

A형 사례 2

①과 ②는 각각 사회의 발명품 수용 기준과 절목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데 '사회발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

①에서 사회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기술을 사회가 수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첫 번째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다. 이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같은 기술이 어느 곳에서는 유용해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이 있다. 별 차이 없는 물건들이라도 사회 내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물건을 선호하는 것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 있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 사회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 먼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를 봤을 때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면 기술의 수용이 수월해진다.

②에서 절목은 사회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수령들과 아전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목에 명목을 추가해 백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수령들이 바뀔수록 명목들이 추가되어 착취는 점점 심해진다. ②의 서술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창고들의 절목을 조사해 불필요한 조목들은 없애고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뒷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과 ②를 통해 사회발전은 기술 수용과 나쁜 전통을 고치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논평>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글 2개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글과 느슨하게 연결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논술하

라는 논제는 그러한 출제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며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자신의 관점에서의 재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본 답안이 제시문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은 두 제시문들이 사회발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사회발전에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수험생이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논제나 입장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각각의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논점들 간의 관계를 수험생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 각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논거들을 일반화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예컨대 답안의 후반부에 절목이 사회발전의 방해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절목이라는 구체적인 예가 대표하는 사회발전의 요인이나 방해물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집합(예를 들어 '제도적 측면' 등)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론에서 자신의 주된 논제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결론도 본론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분량의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B형 사례 1

글①에서는 사회변화의 요건을 네 가지를 서술하고 있고, 글②에서는 필자가 고을 창고의 관례의 폐단과 앞으로의 개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글①의 네 가지 변동 요건을 통해 글②에 나타난 관례의 부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글①에서는 기술의 수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보다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②의 폐단의 경우, 폐단을 시정한다고 해서 관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되려 줄어들기만 한다. 이 때문에 폐단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글①에서는 품질에 관계없이 디자이너 제품을 고르는 사회적 모습을 통해, 사회변화의 요건에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글②에서는 글①의 조건과 유사하게 당시 사회가 탐관과 수탈이 만연하였다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부패한 사회적 가치관을 제시하였고, 이는 어쩌면 고을 수령이 위신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을 글①이 제시해 주었다. 예시로써는, 효율적인 자판이 만들어졌음에도 쿼티 자판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효율적인 자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와 유사한 미국 전자 산업계의 트랜지스터 사용 거부와 영국의 가스사용의 지속이 있다. 글②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이전 탐관의 수탈을 전례로 삼아, 이후에 오는 수령들이 수탈을 지속한다는 대목에서, 어쩌면 글①의 두 번째 요건과 유사하게도,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한 수탈의 제도와 그것을 이용하는 관리들이 기득권층이 되어 제도를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④는 새 기술의 이점이 얼마나 쉽게 보이느냐의 난이도의 문제인데, 글②의 현상에서는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수탈에 이용된 제도의 이점이 관리들에게 얼마나 쉽게 보였느냐로써 유사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건으로 기존의 수탈제도는 지속되었음이 보여진다. 허나, 글②의 필자가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첫째 요건인 경제적 이익을 사익이 아닌 공익으로 보는 등,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요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논평>

이 답안은 논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의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 듯 답안을 작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글 전체를 제시문 ①에서 언급된 '발명품의 수용에 미치는 요인'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즉 경제적 이점, 사회적 가치관, 기득권과의 양립, 기술이점의 확인 용이성 등을 가지고 제시문②를 해석하는 형태로 글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시문의 내용을 매우 많이 인용하고 반복하는 꼴이

되었다. 1050자로 원고지를 가득 채웠지만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필자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줄 정도가 결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수탈제도의 지속 등을 논하며 글을 맺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원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비문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사회변화의 요건을 네 가지를"는 "사회변화의 요건으로 네 가지를"이 자연스럽다. 쉼표의 남용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10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쓰면서 문장이 길고 늘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글쓰기 습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도 몇 군데 오류가 보이므로 앞으로 글쓰기의 기본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

B형 사례 2

①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변화시키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①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하나의 사례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보다 경제적 이점이 많아야한다. 아무리 새로운 발명품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회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그 발명품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에 부합되어야 수용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은 기득권과의 양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기존의 기술이 그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퍼져 있다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쉬워야한다. 기술의 이점을 알기 어렵다면 그 기술의 수용 또한 어려울 것이다.

②에서는 '절목'이라는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변화를 시도하는 한 수령의 글이 소개되어 있다.

절목은 예로부터 고을의 수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임의로 새로운 영을 만들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관례이다. 이 글을 쓴 수령은 이러한 불공평한 관행을 분석하여 비판하였고 사회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는 여러 창고의 절목을 조사하여 사리에 맞는 내용만을 남겨야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 명령을 시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①의 내용처럼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에 부합해야하며 기득권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이점을 인식할 수 있는 난이도를 쉽게 해야 한다. 또한 ②처럼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논평>

논술은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요약의 전형을 보여준다. ①은 이러이러하다, ②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으로 글의 3/4을 할애했다. 결론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는 글의 대부분을 요약하는 데 할애했기 때문이다. 물론 논술에서 요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좋은 글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요지를 파악하여 간결하게 제시하는 반면, 나쁜 글은 요약으로 일관하며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출하는 데 급급하다. 이 글의 결론도 결국 요약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①의 내용처럼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하고 [...] 또한 ②처럼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한다"라고 맺은 결론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서로 비교해가며 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각의 제시문에서 성찰의 주제를 도출시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 각각에 지나치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급급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 아무 것도 논술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논제 II

가) 총평

일부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답안은 1번 소논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답했다. 우수 답안과 부족 답안의 차이는 2번 소논제에 대한 응답에서 주로 나타난다. 부족 답안의 경우 2번 소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나) 우수 답안의 사례

사례 1

1. 2x > 10-x 인 시민만 메신저 A를 고를 것이다.

$2x > 10 - x$
$3x > 10$
$x > \frac{10}{3} \fallingdotseq 3.3$

∴ 시민 4 ~ 시민 10이 A를 사용할 것이므로
총 7명의 시민들이 A를 고를 것이다.

2. 메신저 A의 경우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은 7,
메신저 B의 경우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은 3이다.
따라서 추가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메신저 A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었던
시민4~시민 10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민1~시민3이 각각 A, B를 택함으로서
얻게 될 총 편익을 비교해 보면,

	A		B
<시민1>	2+8=10		9+3=12
<시민2>	4+8=12	>	8+3=11
<시민3>	6+8=14	>	7+3=10

이 되므로 시민 2와 시민 3은 A로 선택을 바꿀 것이다.

시민 2와 시민 3이 A로 선택을 바꾸면 시민 1이 A를 선택할 때 총 편익은 2+10=12, B를 선택할 때 총 편익은 9+1=10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시민 1도 A로 선택을 바꿀 것이고,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sum_{K=1}^{10}(2K+10)$
= 2 × (1+2+ … +9+10) + 10 × 10 = 2×55 + 10 × 10
= 110+100 = 210 이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C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2×(1+2+ … +9+10)+5×10+10×10
=2×55+50+100=110+150=260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총 편익이 크다.
그러나 각 개인이 볼 때, 모두가 A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C로 바꿀 경우 총 편익은 2x+5+1, 즉 2x+6으로 자신이 선택을 바꾸지 않고 A에 남아있을 때보다 적다.
따라서 시민들 중 누구도 A에서 C로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각 시민이 메신저를 선택할 때 사회 구성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이 현상은 둘 다 배신하지 않으면 훨씬 적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선택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이익만을 따져 둘 다 배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논평>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 7과 3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앱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졌다. 비록 "앱을 바꿀 때 자신의 선택은 사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논제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앱을 쓰게 되면 그 앱의 사용자 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응답자 자신이 상정한 조건을 이용하여 답하였으나 논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민 3이 앱 A로 전환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시민 2가 앱 A로 전환하고 결국 시민 1도 앱 A로 전

환한다는 순차적 논증방식을 사용하여, 종국에는 모든 사용자가 앱 A를 사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시된 모범 답안과는 다른 논증방식이지만 우수답안으로서 손색없는 정당한 논증 방식이다.

소논제 3에 대해서도 모두가 앱 A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앱을 전환할 이유가 없음을 정확히 논증했다.

사례 2

1. 시민 X가 A 또는 B를 사용할 때, 얻는 만족감은 아래의 표와 같다.

X	1	2	3	4	5	…	10
A	2	4	6	8	10	…	20
B	9	8	7	6	5	…	0

이 때, 시민 1,2,3은 B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시민 4~10은 A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는 7명의 시민이 A를 사용할 것이다.

2. 질문 1에서처럼 시민들이 각자의 사용 만족감을 고려하여 선택을 내릴 경우, A 7명, B 3명으로 A의 사용자 수가 더 많게 될 것이다.
이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까지 고려한 총 편익을 따진다면, 시민 3의 경우 A는 13의 총 편익을, B는 10의 총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 3은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다.
시민 3이 사용하는 앱이 B에서 A로 바뀔 경우 시민 2 역시 시민 3과 같은 이유로, 즉 A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이 B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보다 커지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고, 그 결과 시민 1 역시 더 큰 총 편익을 제공하는 A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시민들이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르는 경우,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모든 시민이 C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5)+10$ 즉 2X+15 인데 비해,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총 편익을 더 크게 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A를 사용하는 (다)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각자 $2X$의 사용 만족감에 사용자의 수 10을 더한 $2X+10$의 총 편익을 얻는 반면, 이 시점에서는 C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0이기 때문에 C를 사용할 때 얻는 총 편익이 $2X+5$에 그치게 된다. 즉, 사용 만족감만을 비교하면 A대신 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즉 기득권을 잡은 상품은 조금 더 개선된 신상품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평>

사용하는 논리는 위 우수 사례 1과 유사하나 수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언어적 설명만으로 핵심적 논리를 잘 짚어내어 우수한 답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모든 시민의 총편익의 합을 구하기보다 개개 시민에 있어 앱 C의 사용으로 인한 총편익이 크다는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같은 결론이라면 가급적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수식을 쓰는 것보다 설명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

다) 부족 답안의 사례

사례 1

1.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만족감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서비스를 고른다고 한다면 A와 B중 사용만족감이 큰 경우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X를 각 시민들에게 부여된 번호라고 했을 때, A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 B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10-X$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A의 만족감이 B의 만족감보다 클 때 시민들은 A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A의 만족감 보다 큰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2X > 10 - X$
$3X > 10$
$X > \frac{10}{3}$

X가 $\frac{10}{3}$보다 큰 경우라는 결과가 나온다. 단 여기서 X는 시민들에게 부여된 번호라는 점에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계산의 결과와 X의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4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되므로 총 7명이 된다.

2. 시민들이 (나)에 제시된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한 앱을 고른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은 A와 B중 총 편익이 큰 경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조건1>이라 하자. 현재 각 앱의 사용자는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에 의거하여 A는 7명, B는 3명이 된다. 이를 <조건2>라 하자.
문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를 <조건3>이라 하자. <조건1> ,<조건2>, <조건3>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2X+7$, B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17-X$가 된다. A의 총 편익이 B의 총 편익보다 큰 경우는

$2X+7 > 17-X$
$3X > 10$
$X > \frac{10}{3}$

X가 $\frac{10}{3}$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앞의

1과 마찬가지로 4,5,6,7,8,9,10이 사용자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는

$2X+7 < 17-X$
$3X < 10$
$X < \frac{10}{3}$

X가 $\frac{10}{3}$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사용자는 1,2,3

이 된다. 즉, 현재 사용하는 앱을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없다. 또한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건1> , <조건3>에 따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경우의 총 편익은 $2X+10$이 되고, 이 때 B의 총 편익은 $20-X$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 X가 1,2,3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10명의 시민 모두 A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사례 2

1. 시민들이 A를 사용하기 위해 A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만족감이 B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만족감보다 커야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1	2	3	4	5	6	7	8	9	10
A	2	4	6	8	10	12	14	16	18	20
B	9	8	7	6	5	4	3	2	1	0

따라서 A의 만족감이 B의 만족감보다 더 큰 7명의 시민들이 A를 사용할 것이다.

2. A와 B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총 편익은 다음과 같다. A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7명 이므로, 시민X(4≤X≤10)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2X+7$이다. 또, B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3명이므로, 시민X(1≤X≤3)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10-X+7=-X+17$이다.

1	2	3	4	5	6	7	8	9	10
16	15	14	15	17	19	21	23	25	27

이 때, B를 사용하는 시민 1,2,3,은 A로 교체할 것이며, 이 경우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모두가 C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총 편익은, $\sum_{X=1}^{10}(2X+5)=110+50=160$ 이다.
하지만, 모두가 A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총 편익은, $\sum_{X=1}^{10}(2X+10)=110+100=210$ 이다.
하지만, A의 총 편익을 계산함에 있어 A의 사용자 수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A의 사용자가 C로 전환한다면, A의 총 편익 또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

<논평>

부족사례로 열거된 두 경우 모두 제시문과 논제를 잘못 이해하였다. 제시문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앱 B의 추가 편익을 앱 A의 사용자 수로 계산하였다. 그 때문에 이후의 추론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앱 C를 사용할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을 누적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시문은 편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서 만족감을 제시하고, (나)에서 사용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